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미 립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 3학년 304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인과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졌고 분노표출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분노억압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고 분노억압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졌다.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는 분노억압, 분노표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 경향성은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을 이중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노억압과 분노표출 간에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분노억압이 높아지고 분노억압이 높아짐에 따라 분노표출 행동이 증가하여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치심 경향성, 분노표현양식, 분노표출, 분노억압, 학교적응

* 본 연구는 김미립(2012)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300-1700, E-mail : hyhong@mju.ac.kr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이나 급격히 일어나는 신체적·지적·사회적 성숙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서적 성숙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정서적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Thornburg, 1982).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에 의해 전적으로 보호받던 초등학교 시절을 끝내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시기로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진다(정영실, 2005). 더욱이 어제의 진리와 가치가 오늘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넘쳐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친구와 이웃,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상황들은 성장하는 중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안겨준다. 특히 입시 및 성취 위주의 교육현실은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시기와는 다른 중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김대현, 김현주, 2003; 최숙경, 2003). 그리하여 이 시기의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직면하는 많은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여러 측면에서 적응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적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지만 청소년기의 적응은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박지현, 2003).

Havighurst(1972)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을 학교적응이 지니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학업성취,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 학교 생활에서 긍정적 행동유지 등의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황윤미, 2010). 학교에서 학생은 교과활동, 학급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활

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학생 개개인이 학교활동 중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심리적 긴장과 불안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학교생활부적응이라고 한다(김광수, 2003). Garfensky와 Okma(1996)는 학교적응문제는 청소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성인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과 일상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수업, 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학교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정도”로 정의하고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준수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임정순, 1993).

한편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의식 정서가 있다(이향순, 2011). 특히 청소년은 급속한 발달 경험, 또래 평가의 증가, 성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발달적으로 수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박지현, 2007; Reimer, 1996). 수치심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Tangney & Dearing, 2002) 실패의 잘못을 전체적인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나타나는 정서(Lewis, 1971)라는 측면에서 자의식 정서의 하나인 죄책감에 비해 더 부정적인 정서로 간주되는데, 경험적 연구들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심종은, 이영호, 2000; Harder, Cutler, & Rockart,

1992;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김민경(2008)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자기의 이중성으로 인해 정서표현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반추적 반응양식, 과일반화 같은 부적응적 변인과 정적 상관을, 성취동기와 적응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송수민, 2007). 수치심 경향성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이정림, 2005)를 살펴보거나 수치심이 친구관계 혹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인숙, 최해림, 2005; 이혜경, 2011; Goswick & Jones, 1981; Laible, Carlo, & Raffaelli, 2000)을 살펴봄으로써 수치심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대해 민감하며 자신의 결점이 수정 불가능한 자신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응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현(2007)은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적응 정서와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치심은 남녀 모두 학교생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수치심이 높을수록 관계적 측면이 강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완벽함을 강요하는 학교 교육체계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의 수치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수치심 정체성의 개인은 과도한 성취와 완벽주의로 수치심을 덮으려 한다는 Bradshaw(1988)의 견해와 일맥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이정림, 2005)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arper(1990)는 그의 저서에서 수치적 정체성과 부적응적 대인관계에 대하여 수치적 정체성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탐색하거나 타인에게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타인이 자신의 수치심이나 결점을 찾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홍은수(2002)는 자신의 수치심이 발견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분노에 찬 행동이나 빈정거림 혹은 물리적 폭력의 행동까지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수치심이 방어기제로 작용하여 모욕감과 노여움, 분노감 등이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함,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 하기도 하고(김현주, 2011) 편견증, 적대감-분노, 대인관계 민감성, 우울증(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및 불안, 낮은 자존감(Harder & Lewis, 1987)과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친구와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이혜경, 2011; Goswick & Jones, 1981; Laible, Carlo, & Raffaelli, 2000)는 선행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수치심과 학교생활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심은 여러 가지 이차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관되게 다른 정서보다 분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되고 있으며 수치심과 분노는 일차 감정과 이차감정으로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장진아, 2006). 그러나 두 정서가 발생하는 기제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수치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타인 초점적(other focused) 정서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분노는 목표나 욕구, 희망이나 능력과 같은 자신의 내적인 특성을 참조하여 발생하는 자아 초점적(ego focused) 정서로 알려져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즉 수동적, 타인 초점적인 정서반응으로 알려진 수치심 경험은 어떻게 능동적, 자아 초점적인 정서반응인 분노 경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치심 경험-분노 경험’으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수미, 2009).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분노는 다른 사람보다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김수미, 2009). 이지연(2010)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 상황적 자극에 대해 분노를 더 높게 경험하게 되며 모애착과 분노의 관계에서 아동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이것이 다시 분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윤영선(2005)은 분노는 수치심을 느끼고 난 다음에 관찰되는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김현주(2011)도 청소년의 부적응적 분노표현에 있어서 그 원인들을 부모님과 애착관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내면화되어 있는 수치심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밝혔다. Tangney(1996)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분노감정에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분노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서 동시에 이를 억압하고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대해 Tangney(1996)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치심과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압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김현주, 201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방식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압과 상관이 높았다(최임정, 심혜숙, 2010).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히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피해야할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폭발하는 형식으로 격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노만을 인식하고 억압이나 회피 또는 폭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분노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태도로서 분노와 그 밑에 깔린 수치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리게 할 뿐이다(김성애, 2007). 따라서 분노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과도한 수치심에 대한 방어가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표현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노표현방식과 관련하여 Ellenson(1982)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분노를 자제하거나 최소한 타인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노표현방식은 이처럼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아동은 성숙하면서 정서 표현방법을 수정, 변화하여 점차 과격한 표현은 줄어들고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정인석, 1988; Ellenson, 1982). 유아는 분노를 느낄 경우 주로 신체적 표출양식으로 이를 나타내며(맹지영, 2009, 재인용), 초등학교 아동들 특히 남아들은 분노를 유발시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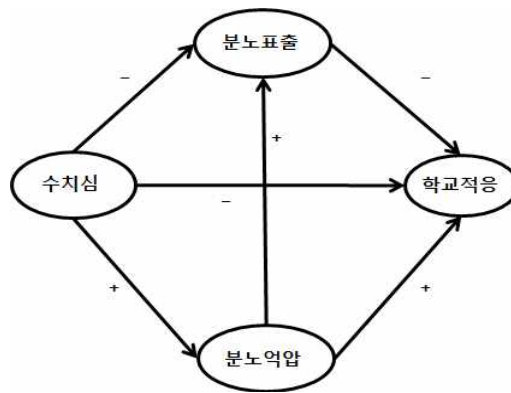
람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 신체적 표출은 점차로 줄어들고 언어를 사용한 표현이 늘어가며 함구, 무언의 소극적 공격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져, 청소년기에 이르면 분노에 대한 반응양식이 뚜렷이 달라진다(맹지영, 2009; Gesell, Ilg, & Ames, 1956). 김광수(2003)는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향(2012)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형석(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표현방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분노표출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분노를 잘 표출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져 청소년의 분노표출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 양상으로 분노표출과 함께 분노억압이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서수균, 2004; Bilodeau, 1992; Gottlieb, 1999; Thich, 2001).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하지만, 분노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치스러워한다(이지연, 2010). 또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자존심 등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우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그 상황을 억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인한 상처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처를 입지도 않음으로써 대인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억제나 회피를 통한 방어라 할 수 있다(김미란, 2001). 분노표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미약하게나마 분노조절이 분노억압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김가희, 2008; 김교현, 전검구, 1997; 김현도, 2008; 나승은, 2009; 서지영, 1996; 유수린, 2012; 임경빈, 2012) 연구 결과가 있다. 분노억압과 분노조절간의 정적 상관뿐만 아니라, 분노표출과 분노조절간 부적 상관도 나타나(김가희, 2008; 김교현, 전검구, 1997; 나승은, 2009; 서지영, 1996; 유수린, 2012; 임경빈, 2012) Spielberger(1988)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분노표출’의 반대극이 ‘분노억압’이 아니라 ‘분노조절’일 가능성이 있다. 손민정(2005)은 분노를 억제하는 아동 집단에서,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볼 때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장성 점수가 높고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일 때 공격성 점수가 높음을 밝혀 아동의 경우 분노억압이 적응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억압 집단이 자존감이 높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부정정서는 낮고 정적정서는 높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더 적응적인 조절양식을 택하게 하는 정서 명료성이 높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개선 믿음이 높은 적응적인 특성을 지니지만(권재영, 한성열, 1992; 옥수정, 2001) 스트레스가 높을 때에는 억압 집단의 정서 명료성이 낮아진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정지영, 2002)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억압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러한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명료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억압을 건강한 방어로 해석하는 한편 억압자들이 부적 정보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적응을 유지한다고 보았다(최해연, 2008). 이와 관련하여 이윤아(2004)의 연구에서도 억압 집단이 저불안 집단을 제외한 비억압 집단

보다 더 높은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을 보임으로써 억압 집단이 저불안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과 동일하게 적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억압 집단의 비적응적 특성이라 가정한 신체화에서도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억압이 개인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억압 집단은 방어와 불안이 모두 낮은 저불안 집단과 마찬가지로 삶, 건강, 대인관계의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정서조절 방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므로 대체적으로 개인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억압적 대처가 적응적이라는 관점은 서구의 연구들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바이다. 일부 연구들은 억압자들이 심리증상을 적게 보이고 건강하며(최해연, 2008; Egloff & Krohne, 1996; Myers & Brewin, 1995), 다른 집단들보다 매일 불쾌한 감정을 덜 경험하고(옥수정, 2001; Cutler, Larsen, & Bunce, 1996), 부정적 감정으로 부터 주의를 돌림으로써 적극적인 대처나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최해연, 2008; Contrada, Czarnecki, & Li-Chern Pan, 1997). 특히 사별을 비롯한 심한 역경을 겪을 때 억압적 대처가 심리증상이나 건강상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적응을 예언하여 억압적 대처가 급성 스트레스에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최해연, 2008; Bonanno, Keltner, Holen, & Horowitz, 1995). 백승혜(2008)는 분노억압과 분노조절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분노를 느낄 때 분노억압을 더 많이 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표출을 하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비해 더 부적응적이며, 억압되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보다 공격적이고 극단적이 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분노조절이 분노억압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김교현, 전경구, 1997; 서지영, 1996)는 연구와 일맥하는 결과이며,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서수균, 권석만(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계현(1993)은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방출시키지 않으면 물이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저장되므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분노억압을 분노조절행위의 일부 혹은 분노표출 행동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노억압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수치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분노 경향성을 보일 것이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주된 분노표현양식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분노표현양식은 학교생활적응에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분노표현 및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수치심과 학교적응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치심 경향성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 정적관계, - 부적관계

그림 1. 수치심, 분노억압, 분노표출과 학교적응에 대한 가설모형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의 강북, 강서, 강동지역의 4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96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30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학생 150명(49.3%), 여학생 154명(50.7%)으로 비슷한 비율이며, 중학교 2학년 97명(31.9%), 중학교 3학년 204명(67.1%)이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 (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경우 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1965) 자존감 척도에서 6문항을 가져와 ISS에 포함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의 부적절감 .92, 공허 .85, 자기처벌 .74, 실수불안 .73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질분노표현

청소년이 지각한 특성분노,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사용하였다. STAXI-K는 총 44문항으로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압(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으로 명명되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하위척도만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 분노억압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영역은 교사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등 총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5문항씩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담임교사 .80, 친구 .66, 학교공부 .78, 학교규칙 .80이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 변인의 왜도(편포도)와 첨도의 값을 산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였다.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하였다. 또한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스트랩 절차에 따라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따른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 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스트랩 자료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이 제안한 부스트랩 방법을 따라 원자료 ($N=304$)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치심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의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가상변인의 경로에 대하여 Bootstrap을 실시하였다(Rindskopf, 1984). 이 방법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결 과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치심 경향성은 분노표출($r=.29, p < .001$), 분노억압($r=.54, p < .001$) 모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s	s1	s2	s3	s4	ae	ar	adj	adj1	adj2	adj3	adj4
수치심	1											
부적절감	.94***	1										
공허	.82***	.65***	1									
자기치별	.87***	.73***	.74***	1								
실수불안	.77***	.69***	.46***	.56***	1							
분노표출	.29***	.24***	.34***	.30***	.09	1						
분노억압	.54***	.45***	.52***	.50***	.41***	.59***	1					
학교적응	-.15**	-.20**	-.10	-.12*	-.02	-.16**	-.03	1				
담임	-.05	-.08	-.06	-.03	.03	-.09	-.01	.76***	1			
친구	-.19**	-.24***	-.11	-.12*	-.10	-.14*	-.14*	.76***	.48***	1		
공부	-.15**	-.20***	-.09	-.14*	-.03	-.16**	.00	.85***	.46***	.54***	1	
규칙	-.10	-.13**	-.07	-.10	.01	-.15*	.02	.83***	.44***	.49***	.71***	1
M	2.31	2.26	2.15	2.25	2.74	1.92	1.89	3.21	3.27	3.34	2.99	3.23
SD	.70	.78	.86	.77	.8	.62	.57	.59	.81	.61	.76	.76
왜도	.46	.41	.54	.64	-.06	.9	.5	.41	.11	.14	.13	.11
첨도	.16	-.25	-.36	.15	-.14	.79	.05	1	-.12	.86	.45	.36

* $p < .05$, ** $p < .01$, *** $p < .001$

주. 수치심=s, 부적절감=s1, 공허=s2, 자기치별=s3, 실수불안=s4 분노표출=ae, 분노억압=ar, 학교적응=adj, 담임=adj1, 친구=adj2, 공부=adj3, 규칙=adj4

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분노표출은 분노 억압($r = .59,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학교적응은 수치심($r = -.15, p < .01$)과 분노표출($r = -.16, p < .01$)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분노억압과는 그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통계적 가정인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Kline(2005)의 제안에 따라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상성을 살펴본 결과,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와 7을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en, 1995).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에서 $\chi^2(df=69, N=304)=353.198, p < .001$ 을 나타내어 모형이 모집단의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김계수, 2007)으로 나왔다. 그러나 χ^2 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평가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수치심 경향성, 분노표출, 분노억압과 학교적

표 2. 모형 검증결과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353.198	69	0.000	.91	.93	.08(.07~.09)
연구모형	323.307	67	0.000	.92	.94	.08(.07~.09)

응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TLI=.91; CFI=.93; RMSEA=.08(90%신뢰구간=.07~.09)을 나타내어 모형으로 채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Kline(2005)가 제시한 모형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에 부합하는 결과이다(TLI>.90, CFI>.90, RMSEA<.10).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62~.89(표준화 계수)이었으며, 분노표출 1, 2, 3의 요인부하량은 각각 .77, .73, .78(표준화 계수)이었다. 그리고 분노억압 1, 2, 3의 요인부하량은 .68, .70, .80(표준화 계수)이었고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56~.87(표준화 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14개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포함하여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이 매개역할을 하는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연구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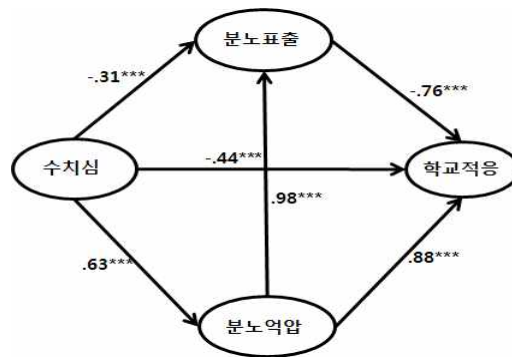
수치심 경향성, 분노표출, 분노억압, 학교적응 간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치심 경향성 → 분노억압, 분노억압 → 분노표출, 분노억압 → 학교적응에서 정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고, 수치심 경향성 → 분노표출, 분노표출 → 학교적응, 수치심 경향성 → 학교적응은 부적 관계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수치심 경향성	→	분노표출	-.23	-.31	.04	-5.11***
수치심 경향성	→	분노억압	.49	.63	.04	11.31***
분노억압	→	분노표출	.91	.98	.08	12.12***
분노표출	→	학교적응	-.69	-.76	.15	-4.72***
분노억압	→	학교적응	.73	.88	.17	4.27***
수치심 경향성	→	학교적응	-.29	-.44	.07	-4.21***

*** $p<.001$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정적관계, - 부적관계; *** $p < .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이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적응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랩 절차에 따라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치심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의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4. 구조모형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수치심	→	분노억압	.63***(.54~.7)		.63***(.54~.70)
분노억압	→	분노표출	.98***(.89~1.1)		.98***(.89~1.10)
분노표출	→	학교적응	-.76***(-1.19~-.5)		-.76***(-1.19~-.5)
수치심	분노억압 →	분노표출	-.31***(-.45~-.2)	.61***(.51~.76)	.31***(.21~.40)
수치심	분노억압, 분노표출 →	학교적응	-.44***(-.7~-.24)	.32***(.17~.57)	-.12*(-.23~-.01)
분노억압	분노표출 →	학교적응	.88***(.53~1.42)	-.75***(-1.28~-.47)	.13(-.03~.29)
수치심	분노억압 →	학교적응	-.44***(-.7~-.24)		.11
수치심	분노표출 →	학교적응	-.44***(-.7~-.24)		-.2

* $p < .05$, *** $p < .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5.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의 Bootstrap 분석 결과

경로			Bootstrap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수치심	분노억압 →	학교적응	.361	.207	.634
수치심	분노표출 →	학교적응	-.153	-.278	-.082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가상변인의 경로에 대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치심’→‘분노억압’→‘분노표출’, ‘분노억압’→‘분노표출’→‘학교적응’, ‘수치심’→‘분노억압’→‘분노표출’→‘학교적응’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치심’→‘분노억압’→‘학교적응’, ‘수치심’→‘분노표출’→‘학교적응’의 Phantom variable 모형에서 매개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경로들의 매개효과가 유의함($p < .001$)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분노억압’→‘분노표출’로 가는 직접효과크기, ‘분노억압’→‘분노표출’→‘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효과크기, ‘수치심’→‘분노억압’→‘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효과크기, ‘수치심’→‘분노표출’→‘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효과크기, 그리고 ‘수치심’→‘분노억압’→‘분노표출’→‘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효과크기에 비하여 각각의 총효과크기가 크게 감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교적응으로 가는 분노억압의 직접경로계수가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의 간접경로계수는 부정

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노표출로 가는 수치심의 직접경로계수, 분노억압을 매개로 수치심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계수, 분노표출을 매개로 수치심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계수,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을 이중매개로 학교적응으로 가는 수치심 경향성의 직접경로계수가 부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들의 간접경로계수는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치심에서 분노억압으로, 분노억압에서 분노표출로, 분노억압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에서 분노억압의 정적인 효과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나 분노억압이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모든 간접경로들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적 매개효과 유의성과 직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부적응을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수치심 경향성이 분노억압을 초래하고 분노억압은 다시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분노억압이 분노표출을 증가시켜 학교생활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매개모형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수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힘들어질 수 있고 혹은 수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분노 감정을 억제하게 되고 억제된 분노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져 이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혹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표현양식에 주목하였다. 수치심 경향성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초래할 수 있고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수치심 경향성이 중학생들의 대인관계와 규칙준수, 수행 및 평가 상황 등 학교생활적응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정서조절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분노표현양식에 있어서 적응적인 성격 및 행동특성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과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유의한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분노표출 행동이 감소하고 분노억압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분노표출의 감소와 분노억압의 증가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불

안과 사회적 회피정도가 높은(Harder & Lewis, 1987; Harder & Zalma, 1990; Lutwak & Ferrari, 1997) 수치심 집단에서는 분노표현이 표출보다는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이 일반적으로 부정응적인 성격특성으로서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는 분노표출 행동을 초래할 것이라 간주되어 왔으나(Tangney, Wagner, Fletcher, Gramzow, 1992), 맥락과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표현양상을 제대로 변별해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분노를 드러냈을 때 돌아오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예상하면서 분노를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서수균, 2004). 이를 종합하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는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때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으로 분노표출 행동이 감소하거나 감정표현의 억압 즉 분노억압이 증가하여 적응의 효과가 커짐으로써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분노억압이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그 효과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분노표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의 방향과 수치심 경향성이 분노억압을 거쳐 분노표출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의 방향이 다르고 수치심에서 분노억압, 분노억압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정

적인 효과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치심에서 분노억압, 분노억압에서 분노표출을 거쳐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방향이 수치심에서 분노표출을 거쳐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 및 수치심에서 분노억압을 거쳐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방향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치심이 많을수록 분노억압이 증가하고 이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분노억압이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되게 됨으로써 결국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치심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분노억압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와 분노표출을 통하여 간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및 분노억압을 통하여 간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조화진, 서영석, 2010; 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이는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이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이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을 억제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분노억압을 통제할 때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분노억압이 분노표출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학교적응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서 부정적 영향력을 억제하여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압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김정향, 2012; 최형석, 2005)와는 상반되는 것이나 분노억압이 조절행위와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결과(백승혜, 2008)와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노억압이 억제효과를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낮은 분노억압 성향에 그 가능성을 두고 분노억압 문항의 평균을 내어 연구대상자들의 분노억압 정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의 분노억압 문항 평균은 1.89점이었으며 304명의 연구대상자 중 116명이 평균 미만, 188명이 평균 이상의 분노억압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분노억압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며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억제효과를 가져온 원인으로 그들의 낮은 분노억압 성향을 생각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압 변인이 타인과의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의 동양 문화권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환경과의 조화를 더 중시 여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관계지향적인 우리사회에서 다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경, 서은국(2009)은 그들의 연구에서 문화성향에 따라 인지, 정서, 동기 체계가 달라지는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가진 집단주의에서는 관계 속 조화의 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가지며 문화마다 다른 정서표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는데(Adams & Markus, 2004; Knowles, Morris, Chiu, & Hong, 2001),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 자체가 목적이며 공동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이고, 타인에의 배려와 관계의 조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서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하였다(김명화, 홍혜영, 2011; 원은정, 2005). 전반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의 속성을 가진(Hofstede, 1991) 한국사회에서의 문화는 유교적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덕목이며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억제이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체면과 공손함을 중시하고 강한 정서의 외적 표현은 매우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며(최상진, 2001; 최해연, 민경환, 2007) 개인의 내적인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조화와 집단의 유지를 위해 강한 정서표현을 자제하고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 경향이 있음(이은경, 서은국, 2009; 최상진, 정태연, 2001; Markus & Kitayama, 1991; Oyserman, Coon, & Klemmleier, 2002; Tsai & Levenson, 1997)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압이 일상생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억제와 표출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분노억압은 분노표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생활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 내적으로는 심리적 장애나 신체화 증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규미, 1998; 이지연, 2010; 이철호, 2010).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이해를 돕고 청소년기에 효율적인 적응을 통하여 보다 건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표출, 분노억압을 설정하였는데 세 변인 모두 학교적응과 관련해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부적응 문제를 다룰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뿐만 아니라 정체성으로 형성되어 개인의 성격 기저에 깔려 있는 수치심의 문제에 접근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그들의 분노와 부적응 문제를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여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수치심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최창석(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죄책감 경향성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심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중 수치심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문제, 규칙준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의 중요성과 그 영향이 증명되었다. 특히, 분노억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정향(2012)과 최형석(2005)의 연구가 유일한데, 분노억압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를 잘 억제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압이 분노표현양식의 하위변인중 하나인 분노조절변인의 기능을

하여 학교적응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억제효과를 가지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금까지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분노조절과 함께 분노표현양식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Spielberger et al., 1985)되어 왔다. 이들 중 분노조절은 순기능적인 표현양식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역기능적인 표현양식으로 심리적, 행동적 적응과 관련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분노억압과 분노표출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계현(1993)의 분노조절, 백승혜(2008)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서수균, 권석만(2002)의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연구가 있고 다른 선행연구들은 분노표현양식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를 살펴봤을 뿐 분노억압과 분노표출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의 인과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가정하고 그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과 적응의 문제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청소년의 수치심과 학교적응 외에 연구대상의 확장과 이들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적응의 문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게 되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건강하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민병수가 1991년에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제작한지 20년 이상이 된 척도

로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기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영, 한성열 (1992). 억압과 정서와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가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계현 (1993). 분노조절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연구, 11(11), 49-64.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4), 393-410.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대현, 김현주 (200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화, 홍혜영 (2011). 자기참묵, 대인관계, 우울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69-97.
- 김미란 (2001). 고등학생의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2007). 수치심 이해와 치료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 (2009). 수치심 경향성과 내외통제성이 분노경험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향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및 분노표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도 (2008). 스트레스 노출 상황에서의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 나승은 (2009). 모애착과 또래애착, 내현적 자기애가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지영 (2009).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분노경험 탐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0.
- 서지영 (1996). 특성분노의 반응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민정 (2005). 부모와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이 자기주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2(1), 89-103.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은정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우울취약성,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린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선 (2005).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수치심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아 (2004).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적응적/비적응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87-200.
- 이은경, 서은국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림 (2005).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0). 자기노출이 분노 억제 경향이 있는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2), 193-210.
- 이철호 (2010). 분노반추, 자기통제 및 용서가 분노경험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순 (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1), 77-104.
- 임경빈 (2012).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문제에 학교 스트레스와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 건강, 3(1), 18-32.
- 정영실 (2005). 또래상담과 훈련이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석 (1988). 新현대심리학. 서울: 태광사.
- 정지영 (2002).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인식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숙경 (2003). 담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중학생들의 학교생활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최창석 (2011).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8(4), 29-48.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2008). 한국인에게는 억압이 적응인가?: 억압 측정의 타당성 논의. 한국심리학

- 회자: 일반, 27(1), 197-216.
- 최형석 (2005). 따돌림의 정도, 분노 표현방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수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미 (2010).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 Markus, H. R. (2004). Toward a conception of culture suitable for a social psychology of culture. In M. Schaller & C. S. Crandall (Eds.),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culture* (pp.335-360). Mahwah, NJ: Erlbaum.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onanno, G. A., Keltner, D., Holen, A., & Horowitz, M. J. (1995). When avoiding unpleasant emotions might not be such a bad thing: Verbal-autonomic response dissociation and midlife conjugal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75-989.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Health Communications. 김홍찬, 고영주 역. 「수치심의 치유」. 서울: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상담연구원, 2003.
-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ntrada, R. J., Czarnecki, E. M., & Li-Chern Pan, R. (1997). Healthdamaging personality traits and verbal-autonomic dissociation: The role of self-control and environmental control. *Health Psychology*, 16(5), 451-457.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utler, S. E., Larsen, R. J., & Bunce, S. C. (1996). Repressive coping style and the experience and recall of emotion: A naturalistic study of daily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64(2), 397-405.
- Egloff, B., & Krohne, H. W. (1996). Repressive emotional discreteness after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18-1326.
- Ellenson, A. (1982). *Human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Garfensky, N., & Okma, S. (1996). Addiction-risk and aggressive/criminal behaviour in adolescence: Influence of family, school and peers. *J of Addics*, 19(6), 503-512.
- Gesell, A., Ilg, F. L., & Ames, L. B. (1956). *Youth: The years from ten to sixteen*. N. Y.: Harper & Row publishers, Inc.
- Goswick, R.,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2), 237-240.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arder, D. H., Cutler, L., & Rockart, L. (1992).

-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3), 584-604.
-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C. D. Spielberger & J. N. Butch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6, pp.89-114). Hillsdale, NJ: Erlbaum.
- Harder, D. W.,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James M. Harper Margaret H. Hoopes, (1990). *Uncovering Shame: An Approach integrating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systems*. New York: W W Norton & Co.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nowles, E. D., Morris, M. W., Chiu, C.-Y., & Hong, Y.-Y. (2001). Culture and the process of person perception: Evidence for automaticity among East Asians in correcting for situational influences o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0), 1344-1356.
- Laible, D.,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impact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utwak, N., & Ferrari, J. R. (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0), 595-59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yers, L. B., & Brewin, C. R. (1995). Repressive coping and the recall of emotional material. *Cognition and Emotion*, 9(6), 637-642.
- Oyserman, D., Coon, H. M., & Klemm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Reimer, M. (1996). "Sinking into the Ground":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sham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Review*, 16(4), 321-363.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1), 37-4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elberger, C. D. (1988).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Tangney, D.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4(9), 741-754.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 Thich, N. H. (2002).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Anger: Wisdom for cooling the flames*]. (최민수 역). 서울: 명진출판사. (원전은 2001년에 출판)
- Thornburg, H. 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 (2nd ed.). Monterey, CA: Brooks/Cole.
- Tsai, J. L., & Levenson, R. W. (1997). Cultural influences on emotional responding: Chinese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dating couples during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5), 600-626.
- West, S. G., Finch, J. F., & Curre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12. 10.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2. 12. 18

게 재 결 정 일 : 2013. 1. 30

The effect of Shame Proneness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chool adjustment

Kim, Mi Rim

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shame pronenes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elevate the understanding regarding school adjustment in order to improve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two possible mediators, th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e., anger-in and anger-out) on the association between shame pronen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ere hypothesized and mediational model was evalu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hypotheses, 304 middle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who lived at South Korea. The partial mediational model was best fitted by the data. In other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hame proneness influenced indirectly school adjustment through anger-in and anger-out and that shame proneness impacted directly school adjustme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hame proneness, anger-out, anger-i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chool adjustment